



위도 교육 소식지

- 발행인 : 교장 장병수
- 주 관 : 교감 박병현
- 편집인 : 교사 김진호
- 펴낸곳 : 위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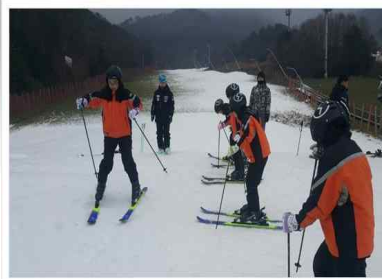
56349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잔등로 113-3 교무실 063-583-3808 행정실 063-583-7062 <http://wido.es.kr>

2016년 제 8호

발행일 2017. 2. 9(목)

제6차 지역탐방학습 -무주 스키 1박 2일 캠프-

본교와 분교생 19명은 겨울 스포츠 체험학습 일환으로 12월 7일(수)~8일(목),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무주리조트로 스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무주리조트에 도착을 하니, 정오 전에 흐리고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정오를 넘어서 차츰 갓습니다. 중식 후 리조트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스키 장비와 스키복 등을 렌탈하고 강습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번 탄 재학생은 서툴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을 더듬으면서 스키를 탔으며, 1학년 김한솔 학생은 처음 스키를 타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는 겨울 스포츠 활동이었습니다. 다음날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오전 강습까지 잘 소화해내고 설원에서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를 즐기는 알찬 1박 2일의 체험학습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도서계 행사- 놀이 중심 체험

2016년 12월 12일(월)에 유치원 원아와 본교, 분교생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서계에서 사전에 책을 학생들에게 읽힌 후 외부 강사분을 초빙하여 독후 활동과 연계하여 행사를 기획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그림책]에 몸담고 있는 김미숙, 김숙영 선생님께서는 '설리아 목욕은 이제 그만', '검쟁이 율리', '깊은밤 부엌'의 그림책 3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원아와 본교, 분교생 25명은 두시간 남짓 동화책 속의 상상의 나라를 몸소 체험하는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위도 관아 탁본 체험-

12월 16일(금) 오늘 전교생 16명은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속종 8년(1682)에 왜구들의 도둑질을 막기 위해 설치한 수군진영인 위도 관아에 있는 비문 탁본 체험을 하러 나섰습니다. 정성스럽게 한지 위에 먹을 문질러서 비문을 뜨는 친구들의 표정은 진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도 관아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라는 것과 역사적인 가치를 알게 된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학생 작품란(그림, 글)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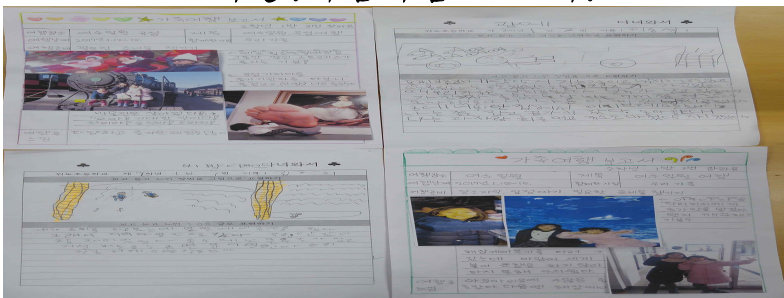
졸업식 및 수료식

1학년(아름다운 한복)



김한솔

2학년(체험학습 보고서)



이승석

장하음

김찬의

3학년(단체 만들기)



노희지

이승은

전환희

4학년

강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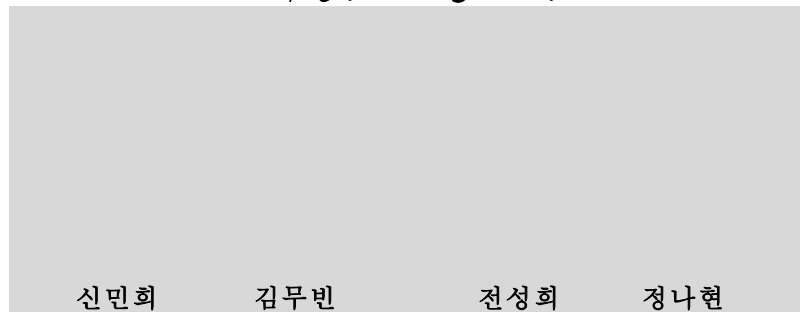
박 건

6학년(체험학습 보고서)

이혜원

강소연

5학년(String Art)



신민희

김무빈

전성희

정나현

식도분교(협동작품)



이서준, 이서연, 정상원



행 사 일

2017. 02.10 금요일
2017. 03.02 목요일

행 사 내 용

2016학년도 졸업식 및 종업식
2017학년도 입학식 및 시업식